

따뜻한 한끼에...사람 만나러...폭설·한파 뚫고 왔습니다

광주 북구 천사무료급식소 가보니

8시 급식소 개방에 어르신들 새벽부터 집 나서
10시 10분부터 3차례 250여 명에 식사 제공
새로 마련된 2층 휴게실에선 장기·바둑 삼매경
외로움·적적함에 '사랑방' 찾아오는 이도 많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김모(61)씨는 5일 동이 트기도 전인 오전 6시 30분 집을 나섰다. 그는 내복에 온갖 두꺼운 옷을 껴입고 완전 무장을 했지만, 영하7도 밑으로 떨어진 아침 기온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 냉기가 뺨까지 스며들었다. 오전 8시 10분부터 3차례 250여 명에 식사 제공 새로 마련된 2층 휴게실에선 장기·바둑 삼매경 외로움·적적함에 '사랑방' 찾아오는 이도 많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김모(61)씨는 5일 동이 트기도 전인 오전 6시 30분 집을 나섰다. 그는 내복에 온갖 두꺼운 옷을 껴입고 완전 무장을 했지만, 영하7도 밑으로 떨어진 아침 기온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 냉기가 뺨까지 스며들었다. 오전 8시 10분부터 3차례 250여 명에 식사 제공 새로 마련된 2층 휴게실에선 장기·바둑 삼매경 외로움·적적함에 '사랑방' 찾아오는 이도 많아

그럼에도 그는 무료 점심 한끼를 챙기기 위해 광주시 북구 두암동 천사무료급식소까지 25분을 걸어들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어 일주일에 3일 내내 와서 무료 밥을 먹는다"며 "형편이 어려워 집에서는 김치에 밥만 먹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맛있는 밥과 곱창, 다양한 반찬과 간식까지 먹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웃어보였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고령의 취약계층은 그 뿐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지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만 2729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10만 201명)의 32.6%에 달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광주 천사무료급식소에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패딩점퍼를 입고 목도리에 잠깐까지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날 이 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한 고령층은 250명이다.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지만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그늘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전 일찍 집에서 나온 이들은 입김을 호호 불며 급식소가 문을 열기 기다렸다.

오전 8시께 급식소 문이 열리자 어르신들은 한 테이블당 8명씩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날 메뉴는 설렁탕과 밥, 김치, 과일, 곱창과 매실 등으로 구성됐다.

급식소 안에는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약간 지경했다. 급식소 밖으로는 어르신들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 4대가 주차돼 있었고 혹여나 배식줄이 길어질까 눈길에 걸음을 재촉하는 어르신들로 입구가 즐비했다.

평소라면 흡플러스 동광주점까지 줄이 이어질만큼 인기가 좋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지 못해 줄이 길지 않았다.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의 말이다.

고령의 취약계층은 급식소가 없으면 하루종일 주린 배를 부여잡고 버텨야 한다.

이날 동구 계림동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달려서 급식소를 찾은 서모(여·75)씨는 "밥을 해 먹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날이 추워도 급식소를 찾게 된다. 급식소가 문 열지 않는 날에는 대체로 굶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급식소에서는 하루 총 3차례 배식이 이어지는데, 1차(오전 10시 10분)와 2차(오전 11시)는 각 168명, 3차(오전 11시 30분)는 40명이 따뜻한 한 끼를 해결 할 수 있다. 2차 티켓을 받은 어르신들은 올해 조성된 2층 휴게실로 올라가 장기와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달에 한번 후원물품으로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면 새벽 3시부터 줄을 설만큼 인기가 좋다. 선물은 쌀과 김치, 초코파이 등 과자, 과일 등 다양하다.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 중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끼니해결보다 사람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 외롭고, 혼자 밥 먹기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적절한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호(77·북구 우산동)씨의 하루 일과는 급식소에서 밥을 챙겨먹는 일로 시작된다. 박씨는 이날 문이 열리기 30분 전 도착해 먼저 도착한 이들과 반

가운 인사를 나눴다.

박씨는 "70대지만 경로당에 가면 청년 취급을 받아서 심부름 하기 싫어 안가게 된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 질 좋은 식사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게 되니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꾸준히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사무료급식소는 한국나눔연맹이 주관한다. 광주에는 북구 두암동에 한곳이며 일주일에 3차례(월·수·금) 문을 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단체)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원자력 진흥 정책’의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고준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5일 밝혔다.

단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산자위)가 윤석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고준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법안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가 아닌 5km로 축소한 점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

력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안으로 수정되면서 고유의 권한과 독립성이 사라졌다”면서 “고준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되고 이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원자력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수명이 만료되며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다민 기자 kdi@

‘장애인 착취’ 신안 염전업자 항소심도 유죄

부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합계 기소된 A씨의 가족 등 4명 중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 4월, 벌금 300만원,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1년을 선고 받은 A씨의 가족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작

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받은 수백으로 3억4000여만원의 가로채 현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해서 지적장애인들을 부당노동시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범행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물품 등을 제공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근무자에 50만원 광주 남구 ‘청년 취업 장려금’ 본격 추진

신청자 모집

광주 남구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남구는 이달부터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

혔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뒤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만 19~39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초

년생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사업자 등록이 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청년 구직자 58명에게 장려금 총 29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남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62-607-2673)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